

## “믿음의 역사”

히브리서 11:1-3

히브리서 11 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만큼 강단에서 설교되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한 많은 말씀을 접합니다. 그런데, 정작 '과연 믿음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실제로 받는다면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믿음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념은 그 출발이 '나 자신'인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굳건히 믿고 있는 나의 신념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 1. 바라봄의 법칙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지 10 년이 넘어 85 세가 되었지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녀를 달라고 간구할 때에 아브라함을 밤중에 불러내셔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것이다' 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 바라봄을 통해 꿈과 비전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교회마다 강단 앞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가 걸려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 의미없이 장식용으로 걸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에 담긴 그 의미를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내 죄가 십자가의 은혜로 사라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2.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두번째 근거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 11:3)**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그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광야에서의 40 년 세월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광야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출 16:4)**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이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사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행하신 결과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 15:13-14)**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분은 스스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안에 굳게 서있음을 통해 믿음의 생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변하는 것은 사람이고,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에 속아서는 안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적인 유혹과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3. 세번째는 모험입니다.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모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험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일까요?

그는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던 사람입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모험, 풍랑 위에서 물위를 걷게 해달라는 모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모험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것처럼, 그들이 눈 앞에 펼쳐진 강물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모험'의 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 '모험'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 4. 넷째는 언어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민 14:28)**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 18:21)**

믿음은 반드시 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막 11:22-23)**

믿음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믿고만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감각적이고 이성적으로 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모해 보이지만, 불가능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며 말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한 것을 믿을 때,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 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라고 하십니다. 아브람(존귀한 아비)에서 아브라함(열국의 아비)로, 사래(여왕, 공주)에서 사라(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꾸라고 명하십니다. 아직 자녀가 없는 이 두 사람에게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이름을 바꾸라고 하신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비웃었겠지만, 그들을 부르는 호칭을 바꾸시며 그들의 언어도 바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통해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천국에 대해, 우리의 구원에 대해, 우리의 믿음에 대해 우리의 입술로 말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 그 자체는 응답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믿었는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상' 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받침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받침대가 비로소 마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받침대가 세워진 것입니다. 이제 그 받침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11 장의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 나눔의 시간

1.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긍정적인 사람입니까?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2.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네가지 법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도전이 되는 법칙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3. 오늘 말씀 중에, '믿음 그 자체가 응답은 아니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 내가 평소에 생각해 왔던 '믿음'에 대한 정의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이야기해 봅시다.